

# 집주인에 의한 정신지체장애노인의 중복학대

## I. 사례개요

### 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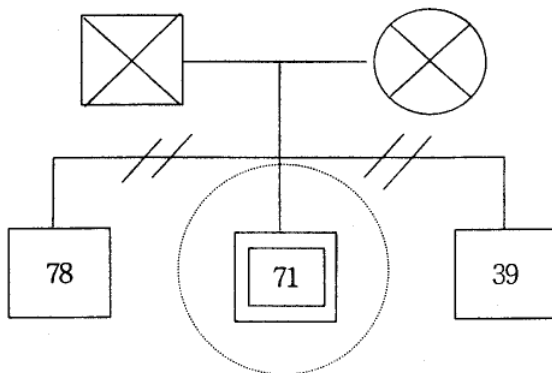
- c't는 13년 전에 남동생에 의해 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, 당시 남동생은 c't의 몸값으로 약 200만원을 받음.
- c't는 정신지체장애로 13년 동안 노동의 대가도,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비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옴.
- 최근에 대중매체를 통해 노예노인 사례가 소개되고,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c't의 문제가 신고 됨.

### 2. 접수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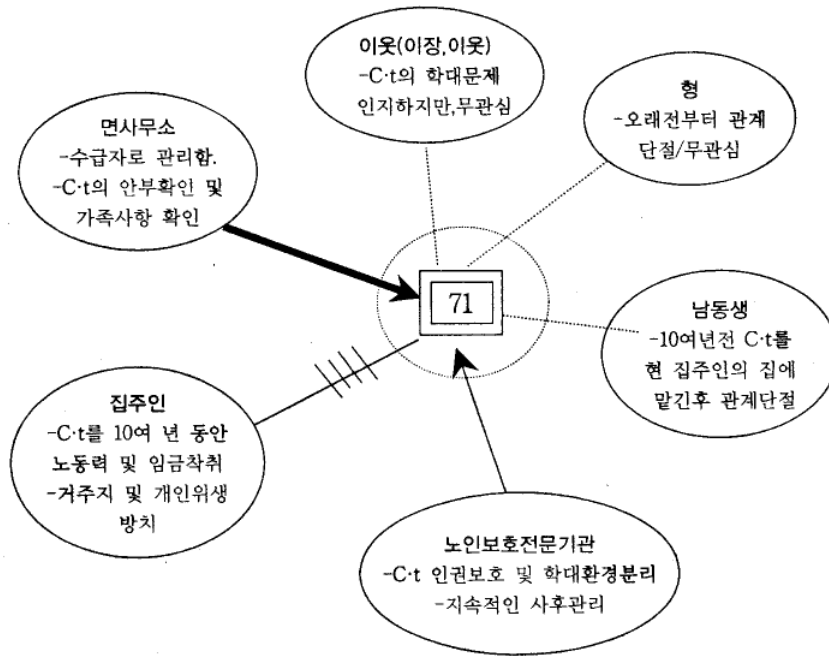
- c't : 원○○(71세, 남)
- 학대행위자 : 송○○(집주인)
- 학대유형 : 재정적, 정서적, 방임학대의 중복유형
- 학대상황 :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c't는 10여 년 동안 집주인(학대행위자)의 과수원에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, 집주인이 마련해준 거처는 컨테이너로 냉·난방시설이 전혀 없어 신병이 위험에 노출되어진 상태. 또한, c't의 컨테이너 안에는 집안 가재도구 및 생활용품이 전혀 없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.

## II. 사정

### 1. 가계도



### 2. 생태도



### 3. 문제 사정

#### 가. c't 사항

- 신체적 : c't는 과거부터 정신적인 장애가 의심되었고, 1998년 정신지체2급장애 판정 받음.
- 심리적 : c't는 10여 년 동안 집주인(학대행위자)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박과 노동을 강요 당하며 살아오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고, 집주인(학대행위자)과 떨어져 살면 안된다는 분리불안 증상까지 보임.
- 경제적 : c't는 수급자로 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았지만 그동안 집주인(학대행위자)이 수급통장을 관리해 왔으며, 10여 년 동안 집주인의 과수원 일을 무임금으로 일 함. 또한, 집주인(학대행위자)의 집 옆 컨테이너에서 혼자 생활을 해옴.

#### 나. 학대행위자 사항

학대행위자(집주인)도 70대 노인이지만, c't를 과거 머슴처럼 대하였고 c't가 살고 있는 환경(컨테이너) 및 노동착취에 대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.

#### 다. 기타 관련자 사항

- 면사무소 전담공무원 : 최근 c't의 소문을 듣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, 집주인이 관리하던 c't의 수급통장을 회수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c't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함.

- 형 : 서울에서 배우자와 함께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고, c't의 문제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, 그동안 c't와는 관계가 단절되어 온 상태.
- 남동생 : c't를 현재 집주인(학대행위자)에게 신병을 넘긴 후 관계가 단절됨.
- 이웃 : c't의 상황 및 문제 환경을 인지하고 있었지만, 작은 시골에서 서로 모른척하거나 알고 있지만 나쁜 소문이 두려워 서로 함구하고 있음.

#### 4. 욕구

c't 욕구	신고자 욕구
정신지체2급 장애로 c't의 명확한 욕구를 파악하기 어려움.	c't가 집주인(학대행위자)에게서 벗어나 더 이상 고된 노동이나 컨테이너 생활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길 원함.

### III. 개입

#### 1. 개입목표 및 계획

- 계획 I. 관할지역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등과 함께 c't가 집주인(학대행위자)에게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.
- 계획 II. 열악한 생활환경 등에 노출되었던 c't의 신체적·정신적인 건강검진.
- 계획 III. c't의 가족 찾기 및 단절된 가족관계 재형성.
- 계획 IV. 지역사회 내 c't의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 추진.

#### 2. 개입과정

##### 가. 사례접수 및 초기대응

- 관할 면사무소에서 지역사회 내 "노예노인"사례와 유사한 c't가 있고, 수급자 관리 중 오랫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,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c't를 발견하고 신고함.
- 관할 면사무소 전담공무원을 통해 그동안 c't의 수급통장을 관리해오던 집주인(학대행위자)에게 통장을 압수하고, c't의 시설입소 권유와 관련한 방문상담 실시.

##### 나. 현장조사 실시 (c't 상담 및 이웃 상담)

관할지역 시청, 면사무소, 노인복지시설 담당자가 현장조사 당일 함께 사례회의를 실시한 후 c't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를 방문하고, 집주인(학대행위자)가족 등 이웃 상담을 실시함.

- c't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는 냉·난방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, 집안 가재도구 및 생활용품 또한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.

- 유일하게 있는 냉장고 안에는 상한 음식들만 있었으며, c't의 속옷을 포함한 겉옷들도 거의 없는 상태.
- c't의 식생활은 주인집(학대행위자)에서 주는 대로 먹고 있음.
- c't와 집주인(학대행위자)의 분리조치를 위해 각각 상담을 시도하였으며, c't의 거주환경 및 노동착취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집주인(학대행위자)의 상담과 c't의 설득 끝에 분리 조치.
- 분리 후 c't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해졌을 수도 있기에 사전에 준비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c't의 건강검진을 실시.
- 또한, 집주인(학대행위자)과 함께 생활할 때 정신지체2급 장애판정을 받은 c't의 좀 더 정확한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연계하여 실시.

다. 가족 상담

c't의 가족 중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친형은 80대의 고령으로 현재 동생을 방문해볼 수 없는 상황이며, c't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 해주고,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살게 될 예정임을 알려줌.

라.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지역 내 기관 상담

- 관할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준비를 위해 시청·면사무소와 상담.
- c't의 건강검진 및 이송협조를 위해 협력병원과의 상담.
- c't의 인권보호 및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.
- c't의 시설입소 후 적응문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상담.

마. 사례종결

- c't는 건강검진 결과 특별한 병이나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,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던 c't를 위해 정신과 상담 및 입원이 진행됨.
- c't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후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사례를 종결하였으며, 유일한 가족인 c't 형에게 시설입소에 대한 소식을 알려줌.

바. 지속적인 차후관리

사례종결 후, c't의 시설적응 문제 등 생활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, 고령인 c't의 형과 이복동생이 시설을 몇 차례 다녀가고 c't는 시설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음.

#### IV. 평가 및 제언

본 사례는 우리나라의 "머슴살이"를 떠올리게 하는 "현대판 노예노인"에 대한 사례이다.

정작 10여 년 동안 c't와 함께 살던 집주인과 그 가족들은 "장애가 있는 c't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"라고 주장했지만, c't가 살던 환경에 단 하루만 살아보라는 상담원의 제안에 집주인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

요즘은 대중매체의 홍보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"현대판 노예노인"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접수된다. 하지만, 아직까지 지역 내 c't와 같은 사람이 함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거나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.

c't는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10여년을 그렇게 살아왔다. 단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도 소외받았던 c't는 70세가 넘어서야 사람으로 존중받고, 인간으로 대우받고 살아갈 것이다.